朝鮮日報
十六日夕刊

時評

不公한 社會事業

×

京城府에서는 每年四五萬圓의 豫算으로 社會事業에다 支出함은 一般의 周知하는바이다

그런데 이 社會事業費의 支出方面의 朝鮮사람과는 全혀 干涉이 업는 事業方面에만 使用된다고 朝鮮人府民의 不平이 藉藉한바인데 이제 傳하는바를 듯건대 京城府에서 만치아니한 若干의 經費를 投하야 桂洞에다 公設洗濯場을 設置한다고 發表함에 一般市民은 이것의 實現을 渴望하엿섯다

그런데 京城府에서는 正正堂堂한 言明이 잇섯슴에도 不拘하고 突然히 이 事業의 中止를 云謂한다한다

그 理由는 무를것업시 그 事業이 一般的이 아니라는다 시 말하면 朝鮮府民에게 만 便宜를 주는 事業임으로 中止하여도 關係치 안타는것일것이다 이것이 一般의 行政者로서 敢히 取할바길일가 朝鮮人도 納稅의 義務를 實行하는 市民이 아닌가 朝鮮府民에게서 徵出한 豫算을 朝鮮人市民을 爲하야 支出하는것은 當然한일이 아닐가 더욱히 一小部分의 支出에 그러케 差別的支出을 하는것은 참너무나 露骨的 感情問題가 아닌가

不安한 京城市

×

요사이 京城市는 不安巷으로 化하엿다 警察網이 아닌 어칠만큼 느러노앗건마는 그것을 여긔저긔서 외똘코 竊盜、强盜團이 橫行한다 이것은 警察이 無能한 까닭인가 法의 制裁보다도 生의 要求가 더 强한 所以인가

人民의 生命 財産의 保護와 社會의 安寧秩序를 維持하는것을 天職이라하는 警察은 某團員의 潛入 重大使命을 띄인 犯人의 入京에만 精神을 다ㅣ 쎼앗긴 세음인지? 竊盜 强盜團의 橫行으로 말미아마 一般市民의 生活이 不安하게된것은 도로혀 等閑視하지나 안는가 이게야 何如는 泥醉輿人하는 警官이 잇다 竊盜團에게 눈을 쎼인 警官이 잇다 이것이 警官의 本色이든가?

우리는 이런 平凡한가온데서 깁히 늣기는바이 잇다 먹을것이 업서서 남의것을 쎼아서 가지고 사더갈려는사람의 쎼가 橫行하는가온데 쎼앗기지 아니라고 不安을 늣기는사람의 무리 이것을 制止하는 것의 무리 天職을 삼는 칼찬사람으로 自由를 엇기 爲하야 獅子ㅁ가든 警察網을 돌코드러오는 冒險의 젊은이 巡査의 눈을 쎼여가면서 남의것을 훔쳐다 사라갈려는 悽慘한 光景 良民을 長劍으로 쎄르는 非理의 行動 이것들이 모두 社會의 病弊가 缺陷이 나은 바 現象이다 이러한 不安이 京城에만 잇스랴

前總統秘書를 死刑에

執政政府의 命令으로

(北京十五日發) 『우데다ㅣ』以來로 馮玉祥軍의 手에 拘禁되엇던 前大總統曹錕氏의 秘書李彦青氏는 執政政府의 命令에 依하야 十五日正午에 死刑에 處하엿더라

吳佩孚氏

歐米漫遊決定

(北京十五日發) 吳佩孚氏는 畢竟段祺瑞氏의 命에 從하야 歐米로 漫遊하기로 決定하고 느저도 本年末外지에는 上海를 出發할 豫定이더라

蒙古新內閣員

執行委員會任命

(莫斯科十三日發) 蒙古省議會執行委員會는 左와 如히 內閣員을 任命하엿더라

首相 『쓰쉐렌덜치』
副首相 『아모올』
軍務大臣 『미리생잡』
總軍司令官 『챠이딸산』
內務大臣 『쓰쉬센한』
文部大臣 『박한』
經濟會議議長 『아마가에프』
軍務會議長 『리쿠조노』

警費節減反對

(奉天電) 東鐵理事會는 鐵道警察費의 節減을 決議하엿는데 此에 關한 張氏는 年額百五十萬圓에서 一文도 減함을 不許한다고 例年과 如한 額을 要求하엿다 더라

華議條約實行內定

外交團通牒과 段政府態度

但孫文氏의 回答을 企待

(北京十三日發) 七個國公使의 條約尊重을 條件으로한 臨時政府承認의 共同通牒에 對하야 中國政府는 아즉 非公式으로던지 公式으로던지 回答을 不與하엿다 그러나 이것은 國務會議에서는 外交團의 照會를 諒解承認하고 同通牒中에 所謂華府會議의 條約及決議의 實行을 希望하기로 內定되엿스나 段執政으로서는 以前부터 不平等條約의 廢棄를 主張中인 孫文氏의 完全한 諒解를 미리 求하야 둘 必要를 認하고 目下北京天津間에 外樣續하야 重要한 意見交換이 잇는 中인바 北京政府側에서 確聞하면 此點에 關한 孫文氏의 回答은 今明中同氏의 代表ㅣ 入京할 李烈鈞氏가 가저올것이며 비록 孫文氏라 할지라도 此際에 外交團의 感情을 害하고서라도 어데까지던지 對外强硬을 主張함과 가튼일은 아마 업슬듯하더라

獨內閣畢竟辭職

(伯林十五日發) 獨逸內閣은 十五日에 總辭職을 하엿더라

辭職聽許

(伯林十五日發) 獨逸大統領『에벨트』氏는『막스』內閣의 辭職을 聽許하얏다 더라 그러나 新內閣成立까지는 『막스』內閣에서 依然國務를 視하라 命하얏더라

內相大統領候補否認

(『나웬』無電十六日發帝通經由) 獨逸內務大臣『야아리스』氏는 來年에 擧行할 大統領選擧에 人民黨의 候補者로 立함을 否認하더라

市加古에 또新政黨

라포렛트氏의 樹立宣言

(나웬無電十五日發帝通經由) 華盛頓特報에 依하면 農者共和黨으로부터 公式으로 除名된『라포렛트』氏의 引率한 進步黨은 來年二月二十一日市加古에 大會를 開하고 正式으로 新政黨樹立의 宣言을 할터이라더라

次回聯盟理事會

西班牙에 開催要求

(『나웬』無電十五日發 帝通經由) 羅馬에 開會한 國際聯盟理事會는 去十三日에 閉會하엿는데 西班牙代表는 次回의 理事會를 西班牙『마드릿드』市에 開催함을 要求하엿더라

瑞西首相重態

(『나웬』無電十五日發帝通經由) 瑞西首相『부란칭』氏는 以前부터 重한 靜脈炎에 罹하엿더니 肺炎을 倂發하야 茲西時間中에 其病狀이 現著히 險惡하엿더라

新嘉坡建設에 反對

『同案施行은 聯盟에 大侮辱』

(나웬無電十六日發帝通經由) 倫敦特報 = 南阿聯邦은 新嘉坡軍港建造案에 反對하는 中인바 聯邦政府의 機關紙는 同案의 實行으로써 國際聯盟에 對한 大侮辱이라 報하얏다 蓋國際聯盟의 成立維持等은 休戰以來南阿聯邦의 代表者特히 當時의 總督이던『스멋츠』將軍等의 極力盡力하던바로 이 平和支持의 態度가 南阿와 如히 比較的 鄕遠한 地에 處하야 國家로하야금 世界政局上에 重要視하게 함에 至케한 所以이더라

모롯코에 또反亂

데리부에라將軍地位危殆

(나웬無電十五日發帝通經由) 『베리이에스프레이』紙의 報道에 依하면 從來『모롯고』에서 西班牙軍을 支持하여온 土着種族中에 反亂이 起하엿슴으로『데리부에라』將軍의 地位는 甚히 危險에 陷하엿더라

佛政府의 對西質問

(巴里十四日發) 佛國政府는 西班牙政府에 對하야 目下西班牙軍의 撤退中인 西班牙領『모롯고』를 如何히 處分할 意圖인가를 무릿더라

共産黨解散命令

(『나웬』無電十六日發帝通經由) 『유고스로비아』政府는 勞農露國承認及對露通商復活에 對한 反對決議를 하얏스며 尙且特別命令으로써 同國共産黨을 解散케 하얏더라

토로츠키氏의 反抗

中央委員會의 排斥行動에

(伯林十四日發) 『룬다푸홀겐』紙의 報道에 가로되 昨今露都莫斯科로 오는 通信은 露國官憲의 檢閱이 자못 嚴重한데 十四日當地에 達한 報道에 依하면 陸海軍委員長『트로츠키』氏는 이제 政務에 對하야 反抗的 態度를 執하는 中이라 傳하며 또 同氏가『크리미아』로 向하야 出發한 後에 莫斯科에서 大混亂을 惹起하야 流血의 慘事를 보게되리라 더라

赤衛軍도『토』氏에 加擔

(『나웬』無電帝通經由) 『부카레스트』來報에 依하면 勞農陸海軍委員長『토로츠키』氏를 一時政局에서 排除함에 對하야 目下莫斯科에 大暗鬪가 起하엿다 赤衛軍은『트로츠키』氏에 加擔하야 莫斯科中央執行委員會의 命令을 밧지안키로 拒絶하엿다는 所聞이 잇더라

阿片會議

停頓理由

(倫敦十四日發) 『제네바』阿片會議는 이미 停頓狀態에 잇는바 其理由에 就하야 論하면 이미 上程하게 된 阿片條約案은 實은 專門家가 重大關頭가 되는 바이나 米國代表는 此條約의 精神을 無視하기 爲하야 極히 友誼的인 提案을 하엿스나 이 미 反對를 受하는 中이다 그 反對의 中心은 印度의 英國代表인데 아마 本國政府로부터 訓電을 接受한 까닭인듯하더라

英國은 絶對抗爭?

米國對獨賠償要求에

(華盛頓十三日發) 確實한 觀測에 依하면 米國의 獨逸에 對한 賠償要求에 反對하는 英國의 異議를 米國은 承認할수 업다고 英國은 該爭議를 世界法廷에 附하야 仲裁하도록 要求하리라고 期待되더라

佛國首相病症과

後任에 對한 風說

(나웬無電十五日發帝通經由) 過般來病床에 就한『에리오』首相은 侍醫의 發表한 診斷書에 依하면 氏의 病症은 患者에 所謂과 맛찬가지로 左足靜脈炎인데 巴里政界消息通者間에는 벌서 氏의 後任者에 對하야 諸說이 紛紜하더라

戰債交涉中止訓令

佛首相對駐米佛國大使

(倫敦十五日發) 『웨트민스타 가렛트』紙特派員의 報하는 바에 依하면 佛國首相『에리오』氏는 十五日駐米佛國大使『지시새 란』氏에게 訓令을 發하야 後任者가 到着하기까지 戰債에 關한 對米交涉을 中止하도록 命令하얏더라 (以下 略)

英國態度와

英政界의 緊張

(華盛頓十三日發) 米佛의 戰債整理에 對한 英國의 態度에 就하야 華盛頓政界는 緊張하게 되엿다. 英國藏相『챠질』氏가 下院에서 陳述하여 가로되 … 米國은 그대로 看過할수 업다고 하엿더라

佛國收入總額

五億法餘增收

(巴里十四日發) 政府의 發表에 依하면 本年十一月의 佛國收入總額은 二十四億七千二百萬法으로 昨年同期에 比하면 五億千二百萬法의 增收를 示하엿더라

露國에 抗議書

에스토니아政府에서

(나웬無電十六日發帝通經由) 『에스토니아』政府는 露國諸新聞이『에스토니아』에 對하야 攻擊的 記事로 每日揭載함에 對하야 抗議書로 露國政府에 送附하얏더라

露國의 生産政策

私人事業緩和

(莫斯科十二日發) 勞農政府는 若干私人事業에 對하야는 其制限을 緩和하고 生産을 促進할 計劃이라고 發表하엿더라

獨新議會開期

(『나웬』無電十六日發帝通經由) 伯林에서 發表된 半官報에 依하면 新議會는 一月五日以前에는 到底히 召集되지 안흘것이오 大蓋새로 多數聯立內閣이 組織될 때까지에는 오히려 만흔 難問題를 解決하여야 할터이더라

駐佛獨逸大使

伯林歸來

(『나웬』無電十五日發帝通經由) 駐佛獨逸大使『폰•헤이슈』氏는 目下交涉中인 佛獨通商協約其他重要한 諸問題에 就하야 獨逸政府當局과 協議하기 爲하야 伯林으로 歸來하엿더라

學生憤慨

思想硏究壓迫에

(東京電) 學生團의 禁止로부터 學生의 軍事敎育에 移하고 更히 思想硏究를 壓迫하게 되야 全國의 高等學校에 對하야 一齊히 思想硏究團體의 解散, 硏究中止의 命令을 내렷슴으로 學生社會科學硏究同盟의 決議가 잇게 되야 十五日에 帝大新人會、早、慶、明의 三大學思想硏究團代表五十餘名은 岡田文相과 會見하고 陳情코자 하엿스나 文相은 會見을 避하엿슴으로 더욱 크게 憤慨하야 午後六時에 帝大에서 善後策을 協議하엿더라

行政整理와 樞府

警告附承認決定

(東京電) 行政整理에 伴한 官制改正案에 對한 意見을 決定하라고 十五日의 樞府審査委員會는 稅關官制中改正案에 對한 濱口藏相의 說明이 잇슨 後政府委員을 退席케 하고 委員의 意見交換에 옴기어 各省官制通則中改正案、各省別官制改正案及右에 關係를 有한 官制는 次回로 讓하기로 하고 討議한 結果有松、平沼、山川三顧問官으로부터 種種의 意見이 나왓는데 全委員一致로 左記를 擧하야

一、行政整理의 結果多數失業者를 出함은 憂慮에 不堪하야 政府는 이 對策確立은 업더라도 振興의 努力을 할事

二、旣往의 行政整理로 보아 一時的人氣策으로 함은 아닌가 覆轍의 悔를 넘도록 그 目的의 達成을 爲하야 努力할事

의 二希望條件을 附하야 同意한다는 委員長의 報告를 하기로 決定하고 四時四十分에 散會하엿는데 右案文作成을 委員長에게 一任하고 同案作成後에는 各顧問官에게 配布하야 二十日頃臨時本會議를 召集하게 되리라 더라

警告文內容 = (東京電)

樞密院는 行政整理에 基因한 官制改正審議를 하엿는데 警告文을 附하야 通過할 模樣인바 其警告文은 左와 如하더라

警告文

今回의 行政整理는 短日月間에 此를 立案遂行코자 한것인 까닭에 處處에 異論이 잇는 點을 發見함은 아니라 緩急이 其宜를 失한 者가 亦不少하다 特히 計較上에 確乎한 基礎가 업고 杜撰한 點이 잇슴은 遺憾을 不堪한다 政府는 將來此點에 留意하는 同時에 失業者救濟에 萬般遺算이 업슴을 期하야 미리 官制改正案實行上에 不平을 失치 안도록할 것을 特히 警告함

駐米大使確定

松平恒雄氏로

(東京電) 重大한 結果云云으로 發端되야 其職을 去한 駐米埴原大使의 後任은 所謂 由로 現外務次官松平恒雄氏로 確定하고 米國으로부터 承諾回答이 오는대로 左와 如히 發表하기로 되엿더라

任特命全權大使米國駐在被命 外務次官 松平恒雄

任外務次官 出淵勝次

郵船又復紛擾

松平參事以下辭表

(東京電) 紛擾를 繼續中이든 日本郵船의 社員側을 代表한 同交會는 犧牲者에 贓首된 十一名의 支店長이 復職되지도 못하고 남어잇는 同交會에 對하야 가장 峻烈한 壓迫을 加한 大谷專務가 新重役으로 留任하기로 確定하엿슴으로 反感이 增하야 幹部들도 大谷專務를 留任식한것은 我等에게 辭職을 要求하는 意味에 不外한것이라하야 依然히 參事松平市三郎, 貨物課長營業部工務課長淺井加良之助三氏는 白仁社長에게 辭表를 提出하게 되엿다 松平參事는 隨員中의 最古參者로서 同交會를 統率하는 人物인즉 辭表가 면 當然히 取締役이 될 것인데 前回의 騷動으로 參事의 職으로 또 긋어 난 사람이다 右에 對하야 白仁社長은 辭任을 中止하라고 勸하엿스나 到底히 들을수 업는 模樣인듯하다고 말하더라

東拓社債保證

今期議會에 提案

(東京電) 東拓에서는 不遠間久保田總裁의 歸任을 待하야 會計計劃에 더로 東拓社債八千萬圓을 限度로하고 政府保證을 得할 事及東拓株主配當에 政府持株에 對하야 配當免除할 件에 對하야 來議會에 東拓法改正案을 提出함에 關하야 運動을 開始할 터이다 卽東拓社債保證에 依한 資金은 朝鮮產米增殖計劃에 使用할 것으로 外米의 輸入을 防遏함에 잇다 大藏省에서도 大體에 異論이 업는 模樣인즉 東拓社債保證案은 來議會에 提案될 것이라 觀測되던다 又東拓은 八步以上의 株式配當을 할 境遇에는 政府持株에 對하여도 配當할 事若八步以下일 境遇에는 配當免除될 것인 그 期限은 大正十四年三月末日外지인 故로 今議會에서 東拓法改正을 實行치 안흘 時는 來年四月부터 政府持株配當을 實行치 안호면 아니되게 되야 東拓整理에 關係가 됨으로 東拓에서는 不可不 이 改正을 希望하는 中이더라

明年度 府學校費

豫算幾分緊縮

京城府學校費明年度豫算은 目下府當局에 手에 依하야 調査中인데 國庫補助金의 削減其他未決定의 것도 잇스며 臨時部에 屬한 學校의 新築等의 關係도 잇슴으로 全部의 編成을 終了하기까지에는 相當한 時日을 要할터이다 그런데 大體로 本年度豫算에 比하야 減額은 될지언정 增額은 當分希望키 難한 模樣이라

現在學校

經常部의 學級은 百八十四學級으로 本年度豫算은 經常費三十九萬圓, 臨時費에는 漢洞外二個所의 學校建築費에 公債七萬圓이 잇고 其他는 學校費 稅約三十萬圓, 授業料雜收入에 依하야 七千圓, 國庫補助金七萬圓의 收入을 得하야 臨時經常五十萬圓의 收入을 得하얏슴으로 明年度에는 學級增加約 升學級及學校增築等도 잇스나 大體의 方針으로는 敎育費의 削減과

一般整理

의 意向과에 依하야 緊縮方針을 取함과 如하나 二十學級增加에 依한 經費는 一學級平均年千七百圓으로 三萬四千圓의 增加이며 尙且建築費는 僅히 希望에 不過한데 若實現한다하면 五萬圓假量임으로 本年經常費는 그 머로 明年度에 踏襲한다 할지라도 三萬四千圓을 增加하야 四十二萬圓이 되며 臨時部는 幾分減少될 것으로 總計上本年度豫算보다 減縮될 模樣이 더라

今年의 朝鮮海運

比昨年增加

本年은 朝鮮對日本及各國共히 貿易船舶의 出入이 多한 模樣인데 昨年에 比하면 約一割五分의 增加하고 本年은 入出港이 共히 各五百萬噸을 突破하게 되리라고 推測된다 然而運賃은 昨年에 比하야 大槪低落步調를 繼續하야 昨年同期와 比較하면 西鮮阪神間은 二割乃至五割이 低落되고 北鮮各港阪神間은 約二割五分이 低落되엇다 又近海航路는 二十六線三十八隻十萬一千噸、沿岸航路는 六十六線百六十五隻一萬七百噸인데 昨年同期에 比하면 近海航路에 서三線三隻五千四百噸、沿岸航路에서 十二線十四隻一千噸이 增加되엿다 또 朝鮮在籍船舶은 十一月末現在에 汽船百三十二隻、四萬二千四百噸、帆船六百一隻一萬九千六百七十九噸인데 前年同期에 比하면 汽船十三隻五千四百七十一噸、帆船二十隻五百十二噸의 增加이오 現在의 補助命令航路는 近海航路六線八隻九、一八○噸 沿岸航路九線一六隻五、七○○噸、河川航路五線八六隻六三一噸인데 來年度에서는 近海航路八線十一隻一三、七○○噸、沿岸航路九線十五隻七、九六○噸、河川航路三線八九隻六四四噸이될 豫定이더라

明年水利工事

總工費程度

認可後目下工事中에 屬한 水利組合은 下南、富平、穩城、中央、龍池及旱害救濟에 屬한 舒川과 振近許可된 靈南인데 此中에 舒川은 大正十五年에 竣功할 豫定이오 其他는 十四年度에 終了할 터이라하며 또 此外에 年內에 許可될 靈光及全北道廳에서 斡旋中인 東津組合及益山과 旱害救濟에 屬한 此以外의 十五組合은 目下各各道에서 調査設計中에 잇는데 更히 土地改良에서 實地調査한 뒤에 或은 豫算上不能等으로 未免할것이라 한다 그리고 明年度에 在한

補助額은

旱害救濟補助의 四百萬圓中에서 土地改良課로서는 一部百七十萬圓으로부터 割當되지 안코 此에 漸次增額의 三百六十萬圓中當然許可되기로 計上되던 舒川、靈光、靈南等各組合에 對한 旣定補助金을 加하야 今明年度間에 三百萬圓前後의 補助를 할터인데 救濟事業으로서의 明年度事業費는 約千二三百萬圓內外이오 一般水利組合의 事業으로서는 明及的明年度計上의 補助金은 年度內에 下附는 終了하기로 當局은 豫算을 定한 模樣인데 各組合으로부터 支出할 各組合의 工事費는 百萬圓으로 計二千五六百萬圓의 水利工事는 明年度內에 行하게 되리라더라

道事務分掌

規定中改正內容

道事務分掌規定中左와 如히 改正되야 內務部에 地方課、學務課、産業課及會計課를 財務部에 稅務課、理財課를 警察部에 警務課、高等警察課、保安課及衛生課로 置함

第五條 道知事가 必要가 잇다 認할 時는 朝鮮總督의 認可를 受하야 內務部에 土木課、山林課、商工課、又는 水産課를 增置함을 得함

第六條 各課의 分掌事務는 道知事가 此를 定함

第七條 知事官房에 主事를 置하되 課長으로 充함

奉直戰後의 滿洲

가장 苦境은 日本人

中村朝鮮軍經理部長談

奉直戰爭後의 滿洲를 視察하고 十二日에 歸任한 朝鮮軍經理部長中村主計監은 말하야 가로되 奉天을 中心으로 滿鐵沿線을 視察하엿는바 戰爭氣分은 어데서던지 볼수가 업스며 軍隊도 歸奉한 것은 一部分이오 大部分은 京奉間에 駐屯中이며 歸奉한 軍隊도 兵士는 老幼를 莫論이나 昔日에 比하야 軍規가 嚴肅한 觀이 잇다

一時奉直戰爭에 杜絶되엿든 滿洲特産의 運送線은 復舊되여 以來 各地로부터 豆粕、高粱、大豆等이 奧地로부터 出廻되는 中이며 奉直戰爭으로 利益을 得한 者는 中國人이오 日本人中에도 極히 一部의 特殊한 者에 든 均霑되엿다 하나 一般日本人은 一時 二百六元外지 下落하얏던 奉天票가 最近 二十元外지 反騰하얏스며 그 後에 아니라 物價는 二百六元時代를 依然히 持續함으로 金票를 使用하는 日本人은 非常히 苦境에 잇는 模樣이다 沿線一帶의 日本人은 實로 沈滯衰敗한 中이며 東鐵의 整理、滿鐵의 緊縮、特殊銀行의 貸出中止等은 滿洲에 잇는 日本人의 有形無形的으로 影響을 밧는 바가 甚大한 模樣이더라

三社連絡手續改正

滿鐵、澤山汽船、朝鮮鐵道會社 三線連帶貨物運送取扱手續은 十二月十日부터 左와 如히 改正實施하게되얏더라

▲連絡地點改正 社線發 = 忠北線、慶北線及慶南線各驛 (簡易驛除外) 發澤山航路大阪、神戶、兵庫着 = 澤山航路大阪、兵庫發 社線着 = 忠北線慶北線慶南線各驛 (簡易驛除外) 着連絡地外지

朝鐵滿鐵連絡地、鳥致院、金泉、大邱 滿鐵澤山連絡地 釜山、大邱

京郵局小包取扱數

十一月中京城郵便局取扱에 係한 小包郵便物數는 引受九千八百七個配達一萬四千七百五十個로 前年同月에 比하면 引受는 一分三厘減少인 反面에 配達은 二分二厘增加더라

鎭南浦結氷終航期

朝郵會社에서는 結氷으로 因하야 前月二十日頃安東寄港을 中止하얏스며 鎭南浦寄港도 左記日로써 各各終航하기로 決定하야 通牒을 發하얏더라

西岸線	二十日着	天安丸
北部中國線	廾九日着	會寧丸
上海線	三十日着	平安丸
義阪線	一月五日着	玄도리丸
鹿兒島線	第二次航日 一月六日到着	春川丸

大同江航路終航

大同江命令航路鎭南浦載寧線도 結氷으로 因하야 十四日限終航되얏더라

鐵筆寫眞

투고歡迎

官吏旅費規則改定

今回行政整理의 結果總督府官吏의 旅費規則은 左와 如히 改正되얏더라

勅任官	
車馬賃	一里에二圓
日當	一日에甲地九圓、乙地八圓
宿泊料	三百圓以內
移轉料	三百圓以內
準備料	二百五十圓以內

親任官	
車馬賃	一里에二圓五十錢
日當	一日에甲地十三圓、乙地十二圓
宿泊料	甲地二十二圓、乙地十八圓

奏任官五等以上	
宿泊料	甲地十五圓、乙地十二圓
移轉料	二百二十圓以內
準備料	二百圓以內
車馬賃	一里에一圓五十錢
日當	一日에甲地七圓、乙地六圓

奏任官六等以下	
宿泊料	甲地十圓、乙地八圓
移轉料	百五十圓以內
準備料	百五十圓以內
車馬賃	一里에一圓五十錢
日當	一日에甲地六圓、乙地五圓

判任官五級以上	
宿泊料	甲地九圓、乙地七圓
移轉料	百五十圓以內
準備料	百五十圓以內
車馬賃	一里에一圓二十錢
日當	一日에甲地四圓、乙地三圓

判任官六級以下	
車馬賃	一里에一圓二十錢
日當	一日에甲地三圓五十錢、乙地二圓五十錢
宿泊料	甲地六圓、乙地四圓五十錢
移轉料	百圓以內
準備料	七十五圓以內

總督府令中改正

明治四十三年朝鮮總督府令第十一號中左와 如히 改正

別表中『永登浦刑務所 京畿道始興郡永登浦面』『咸興刑務所江陵支所 江原道江陵郡江陵面』『及木浦刑務所濟州支所全羅南道濟州島濟州面』을 削함

附則

本令은 發布日로부터 이를 施行함

『參照』 明治四十三年十月朝鮮總督府令第十一號는 監獄及監獄分監의 名稱位置의 件이라

督府年末事務休暇

總督府의 年末事務休暇式은 來二十七日午前十一時半부터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擧行할터인데 當日은 總督府高等官及還信事務局長其他在京城所屬官署의 長은 禮裝으로 參集할지며 下岡政務總監은 一同을 代表하야 年末事務休暇의 辭가 잇슨 後齋藤總督의 答辭가 잇슬지며 尙且年初事務開始式은 來年一月四日午前十一時第二會議室에서 右와 同樣順序에 依하야 擧行할터이라고

辭令

朝鮮總督府營林廠事務官 松澤國治
普通試驗委員을 命함 (六日附)
朝鮮總督府專賣局副事務官 永谷 (六日附)
全州專賣支局長大谷正之助出張不在中事務取扱兼務을 命함 (八日附)
朝鮮總督府內務局長 大塚常三郞
總督官房土木部長事務取扱兼務를 命함 (十五日附)
同 事務官 倉橋 鋕
總督府官房庶務部調査課長事務取扱兼務를 命함 (十五日附)

人事消息

▲三矢警務局長은 十五日東京發歸任의 途에 就하얏는데 京城着은 十七日午後十時라고

▲櫻井殖銀理事 十七日東京發歸任登途

▲池田新殖産局長은 廾三日午后七時着列車로 着任할터이라고

八面鋒

◇ 東拓에서는 百萬石産米計劃을 세웟다지 못살게된 朝鮮人을 더 못살게 만들 作定이로군

◇ 府令이니 威信이니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趣旨이란다 下岡政務總監이 그 前에 엇던 政黨에 屬하엿든가 關係政黨은 아마 그 政黨일터이지

◇ 警官講習所敎師가 良民을 長劍으로 절넛다 한다 못된 巡査의 버릇은 이러 作者가 가르치는 모양

謹告

十二月十六日附(朝刊)本報第一千五百五十九號는 記事中當局의 忌諱에 抵觸되야 發賣禁止의 處分을 當하얏기로 該記事만을 削除하고 號外로 發行하얏기 玆에 謹告

朝鮮日報社

米俱樂部 取締問題
公安을妨害한다면斷然處置
安達商工課長 談

取引所其他의制令問題는아직引繼를受하얏슴뿐으로如何히取扱할지研究를要할者이有하다從하야今에言明할事는不能하나此에附隨하야旣히兩三日前에京城穀物市場의移轉問題交涉을當事者로부터受하얏스나此亦引繼後아직何等의硏究도업슴으로回答키困難하나다만移轉에는前課長同樣으로米俱樂部의處置를如何히할外를決한後가아니면言明키難하다그러나俱樂部를이머로認할與否는硏究를要할

問題 이나려어도其證據될만한것이無함오나苟히公安을害할과如한商行爲가行하게된다하면默過하기는不能하다그러타고何等法律의無體를有치안은것으로此等에對하야認可制를採用할事가妥當할與否는更히

疑問 이다此意味로보면毋體가될만한取引所令과如한者를發令하든지又此方法을執하야一掃할必要가有하야公安을害할念慮가잇다하면警察側에서保安의意味로보아嚴重한取締를할는지何如하든右俱樂部라는것이取仁仲買人의手를經하야行하는者라면爲先根本되는仲買人을自覺케하야此를

閉鎖 케하는것이捷徑이안일外萬一仲買人側에서此에不應한다면取引所에는如何히會社令에依하야取扱되다할지라도何等의認可에對한附帶條件이잇슬것임으로此를延長擴大하야此弊害를防止할事가可能치안을外目下硏究中임으로決定的으로는云치못하나其商行爲가苟히

公安 을害함과如한者라면其認可法을執하는것보다도斷然히禁止하는것이至當하다思함을從하야穀物市場의移轉問題도現在대問할事는當事者의具陳에依하야適當치안라고思하나結局俱樂部問題의解決後가아니면決定되지못할것이아닌가思한다云云

客月物價騰貴

京城商議調査十一月中의主要商品六十種에就한騰落의趨勢를指數上으로보면前月부다騰貴된者는燃料品織物品並食料品中의一部로總計二十九品種이오低落된者는穀物類其他八品이오保種合은九品種取引이無로市勢不成者四品種을示하얏는데此를尤最高記錄인大正九年三月指數를一〇〇으로하야보면當月은食料品七七燃料品八一織物六六、六을示하얏고更히前月에比하면食料品〇、九燃料六、〇織物品三三의各騰貴로平均三、四의騰貴를示하얏더라

上半月不渡減

京城手形交換所十二月上半不渡手形은四十八枚一萬一千七百十二圓으로前月同期의七十二枚二萬五千六百二十七圓四錢에比하야枚數에는二十四枚金額에는一萬三千九百十五圓四錢의激減이오又同期中取引停止處分者數는日本人十三名朝鮮人十五名計二十八名으로前月同期의日本人十一名朝鮮人二十一名計三十二名보다四名의減少이더라

明春세멘트價 二十錢引上
某當業者 談

『세멘트』는目下同業會에서二割五分의操業短縮을하한바東京의復興事業을始하야其他需要가大振한結果明春早早一樽二十錢의引上을爲코자委員會에서協議하야大體決定되얏는바朝鮮도此를倣하야引上케될것인데朝鮮에서

京取銀行金融 大體圓滑企待
平岡京取專務 談

當所代引立替假渡金은最近激增하야四十萬圓에上한바特히懸案이든株式金銀의圓滑에對하야는取引銀行等과折衷한結果會社와의金融關係는應當히好意잇는諒解를得함에至하얏다但目下는年末임으로充分하기는望키難하나新春資金回收期에至하면尙히圓滑한融通을得할것이다云云

長連航路 三角寄港問題 補助金支出承認

曩者京城에서出願하야極力總督府側의諒解를求하는赤手空拳으로外定期航路의寄港地로한다는것은不公한일이라하야中斷되얏든三角寄港問題는熊本縣當局에極力運動한結果縣에서도有義上의補助金額은支出하야도關係업다는旨로了解를得하야不日總督府에此의斡旋키를依賴할旨로通報가來하얏더라

殖銀債券日銀擔保達成

殖銀債券은目下一億一千八百八十萬圓의發行을見케된바豫히日銀擔保適用의要望을爲하야這間에完全한諒解를得하얏다는바事實上에는震災後一般證券과共히應急의處置로擔保受入을見케된바何如間發行高가多額임으로此點에서發行分의措置上相當諒解까지는尙且時日을要할것인바此點에就하야는아직細目의成立을見치못함과如하더라

兩土合倂報告總會

朝鮮土地經營會社는大正土地會社와合倂成立에就하야明春一月八日午後一時부터京城商業會議所에서臨時株主總會를開하고合倂報告를하리라더라

朝土不動産管理業
一日부터開業豫定

朝鮮土地經營會社에서는豫히當局에對하야不動産管理業을計劃하고出願中이엇든바仲介業으로十二月十五日付로서許可되야目下開業準備를急히하는中인데一月八日合倂總會終了後부터開始할豫定이라고

鐵珠板

▲朝鮮銀行에서申請中이든 限外發行二千萬圓擴張案은 半減의一千萬圓增으로認可되리라고▲新商工課長談의表示인가 大藏省의緊縮主義의表面問題되든米俱樂部取締問題도公安을害하는限에서斷然處置云 公安을害할念慮云云이업는것을보면 新課長下의俱樂部先生들爲先安心이可?▲東拓에서는 憂事改良區를決定하얏다든가『理想的』으로實行한다든가 東拓에取하야는 小作料增收가理想中의理想的!

明米

仁川期米 第一報 十二月十六日
止價比較表

	昨後止	今後止	比較
當限	兲、三〇	—	—
中限	—	—	—
先限	兲、〇九	兲、八四	五低

前場頭重

昨後場阪地止價四十圓의惰報와共히三十五圓〇九錢에止場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阪地初付四十圓〇一錢의報를接하고三十五圓十五錢인昨止價보다六丁高價로場을始하엿는데買氣依然不添하야阪地三節〇七錢을報하나二節亦十五錢을示할뿐으로頭重의勢를呈하든中阪地六節三十九圓九十五錢으로七節九十八錢인反落을接하고七節〇一錢外지漸落하엿다가結局阪地止價九十一錢인最低를伴하고〇五錢으로外場을止하엿는데高低의差는十四丁이며阪仁의鞘는四百八十六丁이더라

注目할病的時勢

近日阪仁硬의形勢로四百六十餘丁外지縮鞘하야硬氣를釀成하든餘地에昨後場阪地三十九圓九十四錢의分岐의上勢를伴하고買氣더욱熱狂되엿스나阪地反撥을唯一動機로하야旣히滿腹된⊙筋의利食賣物이續出함으로局勢假然一進하야阪仁의鞘가四百九十餘丁으로擴大하엿다然而今後의當地時勢가如何히展開될지確키는難하나本年度大納會日이漸迫到할뿐더러兩方의方針도될수잇는대로年內에各自의繫米를處理할模樣이라그럼으로⊙筋은高價에는賣拔하려하는傾向이有하다云云그러나低價에는또한放任치안코頹勢를防止하리라고亦云云인바場勢가果然如斯히展開하는때에는買方도注意치안을수업다고

取組高

	前場 當限	中限	先限	後場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	兲、三五	—	—	兲、只
二節	—	—	兲、一五	—	—	兲、只
三節	—	—	兲、二〇	—	—	兲、只
四節	—	—	兲、〇九	—	—	兲、只
五節	—	—	兲、五	—	—	兲、一〇
六節	—	—	兲、〇	—	—	兲、只
七節	—	—	兲、九	—	—	兲、四
八節	—	—	兲、八			
九節	—	—	兲、只			
十節	—	—	兲、〇五			

取組高

當限	一八、〇〇〇
中限	九九、〇〇〇
先限	四二一、〇〇〇
賣買石數	三三八、〇〇〇
本期總高	四、三三九、〇〇〇

兩地相反의商勢

曩者阪地四十圓十四錢의高價를演出할時에當地는三十五圓三十錢인最高를示하얏섯다그後에阪地는三十九圓臺로反落하야一時軟態에傾할뿐이엇스나當地는⊙筋의大大的買物이現出하야三次五圓臺를突破하는同時에阪仁의鞘는不知中四百六十餘丁으로도縮少하엿섯다時勢란何樹外지偏傾的步調를示하다가도突然服調로恢復되는일이업지안이할뿐더러도리혀正反比의狀態로轉換되는時勢도업지안는것이다그러한데連日軟勢를支續하는阪地

豊仲買店

仁川府海岸町三丁目
電話長六〇二·五三六番
電略『ユ』又는『ユタカ』

京取長期賣買及標準價〔十六日〕

株名		前場 賣買	前場 標準	後場 賣買	後場 標準	株名		前場 賣買	前場 標準	後場 賣買	後場 標準
京取	寄/止	—	—	—	—	釜産	寄/止	—	—	—	—
仁取	寄/止	90.0	—	9.00	—	朝郵	寄/止	—	—	—	—
長新	寄/止	3.00	—	3200	—	鮮鐵	寄/止	—	—	—	—
鮮銀	寄/止	—	—	—	—	一新	寄/止	—	—	—	—
同新	寄/止	—	—	—	—	二新	寄/止	—	—	—	—
殖銀	寄/止	—	—	—	—	三新	寄/止	—	—	—	—
同新	寄/止	—	—	—	—	四新	寄/止	—	—	—	—
商銀	寄/止	—	—	—	—	倉庫	寄/止	—	—	—	—
一新	寄/止	—	—	—	—	京南	寄/止	—	—	—	—
二新	寄/止	19.0	—	900	—	金剛	寄/止	—	—	—	—
漢銀	寄/止	3000	—	30.0	—	滿鐵	寄/止	—	—	—	—
同新	寄/止	650	—	650	—	同新	寄/止	—	—	—	—
韓銀	寄/止	—	—	—	—	東亞	寄/止	—	—	—	—
東拓	寄/止	42.00	—	4200	—	同新	寄/止	—	—	—	—
同新	寄/止	—	—	—	—	勸信	寄/止	—	—	—	—
鮮土	寄/止	—	—	—	—	朝信	寄/止	—	—	—	—
朝紡	寄/止	—	—	—	—	義信	寄/止	—	—	—	—
滿毛	寄/止	—	—	—	—	滿取	寄/止	—	—	—	—
京電	寄/止	—	—	—	—	泰信	寄/止	350	—	350	—
同新	寄/止	1480	—	1480	—	安取	寄/止	—	—	—	—
電興	寄/止	—	—	—	—	大新	寄/止	—	—	—	—

仁川正米反高

昨後場부터假然反高를報한阪地期米의時勢를觀視한正米市場은突然硬氣를帶하야今朝⊙玄米는三十五圓三十錢인十錢으로反高하고地廻米는三十三圓四十錢인四十丁의暴騰을告하엿스며精白米는四十圓인同樣의時勢를支持하나正租는在來種十錢四厘인亦同樣으로改良種은十錢七厘인反高를示하는데市中에는幾分硬氣가潛在한듯하다고

大阪期米 (十六日)

	前場	後場
當	兲、〇一	兲、九八
中	兲、五	兲、九七
寄		
一節	四〇、〇	
二節	四〇、〇一	
三節	四〇、〇三	
四節	四〇、〇三	
五節	四〇、〇三	
止當		兲、〇〇

東京期米 (十六日)

	前場	後場
一節	四一、三〇	四一、〇八
二節	四一、三〇	四一、〇八
三節	四一、二六	四一、〇八
四節	四一、二七	四一、〇六
五節	四一、一五	
六節	四一、〇九	
七節	四一、一〇	
八節	四一、〇九	

各地期米 (十六日)

	前場	後場
兵庫	兲、三	兲、〇一
下關	兲、四	兲、二
桑名	四〇、三	四〇、一九

各地期米比較 十六日

	昨後止	今前付	比較
大阪	四〇、〇〇	四〇、〇一	一高
兵庫	兲、三	兲、三三	一高
桑名	四〇、〇五	四〇、三	一七高
下關	兲、四	兲、四〇	七低
東京	四〇、九三	四一、三〇	三八高

米豆餘話

▲이번에阪地의反撥된原因은엇더한材料라指稱할는지?今後大勢에야環境의事情이硬氣를助長할뿐이겟지만▲各地의一齊高價를報함을따려阪地亦一段高價를演出하엿다그런데各地의一齊高謂된그動機는또한무엇인가?▲果然鮮報키는難하나臆測컨대山田筋의當限渡米의準備가槪括的으로지우着되는同時에正米의出廻가例年과如히旺盛치못함을窺視하고買氣熾烈함이안인가한다▲何如間阪地는又復一時氣勝을告할뜻하나當地는⊙筋이自由自在로高價에는利退하고低價에는買防할뜻한傾向이有함으로特異한時勢는無하리라고▲참으로年內當市場의左右權을가진⊙魁首의行動이何如할지注目할뿐

局勢가高調를示하자當地는反히軟調에傾할듯하니면兩地의情勢가轉機相反하는感이不無하다然而阪地는未幾에一大反高를現할줄로預測이나當市場은前來硬勢를支持한그程度만큼은軟勢를帶하리라고市評이區區不同

株・式

京取市場 十六日
前場續落 鍾新伸惱

大新 八〇低 京取 四〇低
鍾新 九〇高

(昨日終價와前場終價比較)

今朝는阪電이大新은下落、鍾新이伸惱임으로當地는場面이無活氣를帶하고閑散中京取大新低落鍾新續騰으로그外는全然不成이고長期漢銀株가三十六圓에十枚賣買가잇섯스나即大新은阪弱으로吉見猛賣로漸次下向하야八十六圓에大引되엿고鍾新은阪强으로新價出現에當地는依然히買買小口나百七圓新高價에外지猛騰이다가阪後止로다시急轉直下하야百五圓九十錢에大引되엿스며京取는吉見賣로閑百買가잇섯스나低下되여二十五圓付止로三十錢步調가잇섯섯다

後場大新後返

大新 四〇高 京取 保合

(前場終價와後場終價比較)

後場은阪電이續弱하야大新이八十五圓三十錢鍾新이百五圓初付로步調齊하야鍾新은百四十錢出으로當地는大新이軟派의續賣로八十六圓兼欄이八十五圓八十錢初付後五六十錢相步이다가阪步가後返하야八十五圓七十錢九十錢으로大引에引返되어八十六圓二十錢에當地는二十錢上鞘도八十六圓四十錢에大引되바依然買氣勝이엇고京取는一段五圓半割로二十四圓九十錢이엇섯스나다시二十五圓을恢復하얏다

그래도沈默을破할材料업스니賣買兩派가서로觀望이겟다

年內閑散持續?

大新에對한當地人氣는豫高豫想이膨脹하야買氣勝으로阪地가不勢임에不拘하고上鞘持續이나場面은活氣가업고觀望氣分이잇서年內는現狀대로閑散이持續할가생각되니그原因으로볼것은鍾新高에大新이從來와가티追從치안코阪地는買氣減하야一段低를豫想하는程度로當分은下落임으로當地만부터마고買進키難한事情이잇고大新代引의歲末金融의關係上受株가업는限에는新規代引을拒絕할市場方針이니이것도閑散을具하는一因이겟다軟派는活動코저하나鍾新高로採手이더니今朝는鍾新이伸惱로大新下向氣味를帶하는阪電에

百五十을猛賣하야吉見이四

防買에도不拘하고株價는八十錢으로八十六圓에終步하고大引은阪止八十五圓八十錢에氣速되여不成이엇섯는바萬若阪地가强轉치안코保勢를呈하면軟派는突込賣할氣勢가보이엿다

新鍾新價躍進
百七圓臺出現

昨朝에四圓三十錢急騰으로後場에小低를呈한氣先今朝는阪付가續强에當地는高價買物로又復一躍하야百七圓에强步로新高價出現이나阪止反騰하야百五圓五十錢에急反落을告하야百五圓九十錢大引이나新鍾의將來는漸次强固할氣勢가잇스니滅配가反히排込期를早速히하리라는觀測을生하야絲業界의形勢를보고紡績株熱狂時代出現을豫想하야買氣瀰漫하는外닭이다

京取吉見猛賣

오래동안賣買傍觀으로無味閑散한商狀을持續하든京取가昨朝鍾新爆騰에겨우三十錢高를呈하고後場에保價이더니今朝에는吉見이大新을四百五十京取를二百五十을猛賣하여서各低落을告하야京取는四十錢低로二十五圓에終하얏는바吉見賣對定岡買로持久戰을持續하야互相傍觀이던것이라突然히二百五十의大口賣가出現하니京取勝再開를豫想케한다따러서萬若買方이對抗치안으면一段低는未免이라겟스나買方이

代引算定日步

株名	算定	代引	日步
京取	三三、〇〇	一三三、〇	三
仁取	九〇〇	二〇	五
仁新	三一、〇〇	八〇	五
朝紡	二〇〇	—	五
鍾新	一〇六、〇〇	九〇	五
拓新	二、〇〇〇	—	一〇
安取	一、一〇〇	三三〇	五
大新	八六、〇〇	三三五	五

大新代引激增

昨日에取組四七七〇代引二三三〇이든大新은今日에取組五〇八〇에對하야代引三三五〇으로激增되어日步도十錢增으로七十錢이엿다

短期賣買高 (十六日)

合計 一千四百二十枚
累計 三萬一千六十枚

大阪長期株式 (十六日)

株名	前付	前止	後付	後止
鍾紡	三三七〇〇	三三七〇〇	三三六〇〇	三三六四〇
同新	一〇六三〇	一〇五八〇	一〇四八〇	一〇四七〇
大株	一〇二〇〇	一〇二一〇	一〇一八〇	一〇二〇〇
同新	八六八〇	八六六〇	八六八〇	八六五〇
郵船	八〇七〇	—	八〇五〇	八〇三〇
同新	—	—	—	二六一〇
商船	—	—	四〇一〇	—
同新	—	—	—	—
日糖	一〇九七〇	一〇九七〇	一〇九四〇	一〇八八〇
東紡	一三九六〇	一三九五〇	一三九四〇	一三九四〇
大新中引	八六九〇	八六九〇	—	八六〇〇

大阪短期株式 (十六日)

株名	前付	前止	後付	後止
鍾新	一〇五四〇	一〇五三〇	一〇五〇〇	一〇五三〇
大株	八六〇〇	八六〇〇	八六五〇	八六三〇

大阪大新步調 (十六日)

▲前場 八六、〇 一三〇一六〇一 ─ 一〇一 一〇一 八六、〇一 一八六〇〇一 八五八〇一 八五九〇一 八五六〇一 八六〇〇一

▲後場 八五三〇一 三〇一 三〇一 三〇一 四〇一 七〇一 九〇一 八六、〇一

穀物

釜山 賣買高 一萬石

		神力	
改良	三六、七〇	神力	三六、一〇
大豆	一九、九〇	十二月末	三五、八〇
一月中	三六、五〇	一月末	三六、四〇
二月中	三六、八五		

群山 賣買高

全羅三等 三七、四〇 同四等 三六、〇〇

	一月中	一月末	二月中
一回	—	三七、二六	三七、四八
二回	—	三七、二三	三七、五五
三回	—	—	—

大邱 賣買高二萬五千石

改良 三六、三〇 神力 三五、三〇

	一月中	一月末	二月中
一回	—	三六、〇〇	三六、一〇
二回	—	三六、一〇	三六、二五
三回	—	三六、六五	三六、三五
四回	—	三六、六五	三六、一七

京取短期

株名	付價	止價
前場 京取	二五〇〇	二五〇〇
仁取	—	—
仁新	—	—
朝紡	—	—
拓新	—	—
安取	—	—
鍾新	一〇五五〇	一〇五九〇
大新	八六五〇	八六五〇
後場 京取	二五〇〇	—
仁取	—	—
仁新	—	—
朝紡	—	—
拓新	—	—
安取	—	—
鍾新	—	—
大新	八五八〇	八六四〇